

# “한국문학 세계로 알리는 교두보 되겠다”

佛 악트 쉬드社 편집장 베르트랑 피씨

‘한국문학총서’를 발간, 프랑스는 물론 불어권 유럽 독서계에 ‘한국문학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악트 쉬드(ACTES SUD)사의 편집장 베르트랑 피(42, Bertrand Py)씨가 지난 5월 21일 내한했다.

한국문학총서의 발간에 참여했던 작가, 번역자 및 문단관계자들을 두루 만나보기 위해 7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에 온 피씨는 이문열 이청준 조세희 윤후명 최현훈 김승옥 등 이미 ‘총서’를 통해 프랑스문단에 소개되었거나 현재 출판 준비중인 작가들을 방문하는 한편 지난 25일에는 김병익(문학평론가, 문학과지성사 대표) 김치수(문학평론가, 이화여대 불문과 교수) 등과 만나 한국문학과 문학출판의 현황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악트 쉬드의 한국문학총서가 있기까지 실질적인 산파역을 했던 최현무(서강대 불문과), 파트릭 모뤼스(성균관대 불문과) 교수도 함께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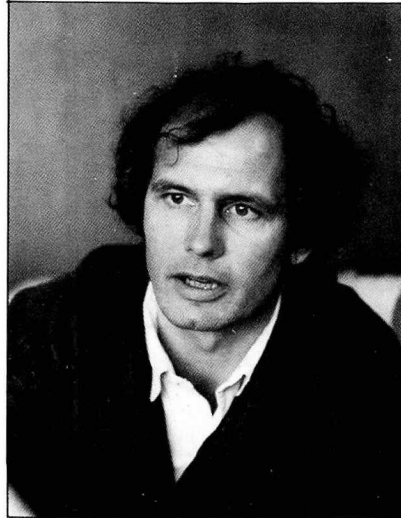
“우리출판사에서 이미 책을 냈거나, 현재 출간준비중인 작가들, 그리고 번역자, 총서발간에 일정한 지원을 해주었던 문예진흥원 관계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총서발간뿐 아니라 양국간에 문화 교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프랑스에 앉아서도 작가들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겠지만, 작가와 출판사와의 관계는 먼저 신뢰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 구체적으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한국문학총서’는 프랑스의 문학전문출판사인 악트 쉬드와 당시 유학중이던 불문학자

최현무 교수의 모험적이고 야심에 찬 기획으로 시작돼 5년여의 준비작업끝에 지난 90년 이문열의 「금시조」로 그 첫권을 선보였다. 이어 역시 이문열의 「그해 겨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발간, 애초에 기대한 것 이상의 성공을 거두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왔다. 이듬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균영의 「어두운 기억의 저편」 이청준의 「이어도」 등을 발표 프랑스 독서계에 한국문학바람을 일으키면서 현재 9권까지 출간해놓고 있다. 이같은 바람은 르몽드紙, 누벨옵세르바퇴르誌, 포앵誌 등이 서평란을 통하여 한국문학을 대대적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지난해 10월 프랑스내 진보적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특집을 마련 이문열 이청준 오정희 조세희 등과 가진 인터뷰 기사를 실었고, 최근 르몽드의 자매월간지 르몽드디플로마티크 5월호는 한국문학 특집을 마련 한국문학의 특성과 수준을 조명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반응은 여기서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열광적입니다. 악트 쉬드에서 세계 여러나라의 문학작품들을 번역해왔지만 ‘한국문학총서’만큼 집중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시리즈는 드물었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던 나라의 문학작품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앞다투어 소개하는 저널리즘의 일회적이 아니라, 처음의 호기심이 새로운 문학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신선하고 놀라운 충격이었던 거지요.”

베르트랑 피는 이같이 기대박의 화제를 낳았던 이유로 한국문학 자체의 우수함과 함께



베르트랑 피.

그 우수함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했던 ‘총서’팀의 기획력을 그 요인으로 꼽는다. ‘총서’의 기획에는 여러방법이 가능한데, ‘한국문학총서’의 경우 여러작가의 여러작품을 골고루 다양하게 보여주기보다 한 작가의 여러작품을 계속해 보여줌으로써 한 작가의 전모를 드러낸 후 다음작가로 넘어가는 식의 집중성 있는 기획이 주효했다는 것.

실제로 한국문학 총서가 나오기까지 프랑스의 대형서점의 아시아문학 코너에는 일본문학이 대다수를 차지한 채 우리문학은 간혹 눈에 띄는 정도여서 외국독자가 일관성있게 한국문학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나와있는 총서는 번역의 질에 있어서나 외양에 있어서도 가장 우수해 우리문학의 해외소개가 본격화되는 데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번

역은 문학에 전공한 프랑스인과 한국인 2인이 한 팀을 이루어 문학번역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현재 프랑스 서점에서 시판되고 있는 한국문학총서의 판매량은 각 권당 2500~4500여 권 정도. 실제 독자의 수는 판매부수의 5배로 계산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렇게 보았을 때 한 작가가 낯선 나라에서 1만~3만의 독자에게 읽혔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수’라고 피씨는 표현한다. 악트 쉬드는 지난 78년 창립 파리근교의 아를르에 본사를 두고 1년에 150여종의 책을 펴내는 문학전문 출판사. 출판정보지 악트 쉬드가제트를 발간 독일 스페인 등 유럽내 출판사와 서점에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있으며, 문학전문의 악트 쉬드 외에 소극장운영, 공연기획 등을 하는 자회사도 여럿 두고 있는 전문적인 문화커미셔너로도 유명하다.

“한국의 출판사, 문예진흥원 관계자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갑니다. 아직 논의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순히 출판뿐 아니라 한국문화를 프랑스 및 유럽에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문학을 세계로 알리는 데 악트 쉬드가 교두보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씨는 1년에 3~5권씩 기간에 제한없이 “한국의 작가들이 세계의 독자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 한 ‘한국문학총서’는 계속 발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혜옥 기자

## ○ 종이장미 (A Slipping Down Life)

그동안 국내에 소개된 앤 타일러 작품이 대부분 20대 후반의 여성들이 겪는 사랑과 결혼, 부부간의 심리적인 갈등과 고민들에 대한 세밀한 묘사였는데 반해 이번 앤 타일러의 최신소설 '종이장미'에서는 에비라는 열일곱의 소녀가 가수이름을 이마에 새기며 사랑을 성취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입니다.



신국판 / 정성호 옮김  
I 권 값 4,000원 / II 권 값 4,500원

## ○ 섬강에서 하늘까지

아들을 따라 섬강물속으로 뛰어들어 아내, 그런 처지의 뒤를 이어 생의 의미를 하늘나라에서 찾은 자 했던 장애인. 이들 가족의 끊어질 수 없는 영혼잇기는 어디에서 연유된 것일까?

조해인장편소설  
신국판 / 310면  
값 4,000원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112-31호  
전화 : 923-7907 팩스 : 929-2319

## ○ 모래알의 지혜

오늘날의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물질문명은 고도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타산적이며 이기적으로 변모되어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일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라즈니쉬의 수필강론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여섯가지 우화과 그에 대한 적절한 철학적 설명을 통해 제시해 주고 있으며 헛된 꿈과 욕심에서 벗어나도록 깨달음의 말을 전해주고 있다.

■ 신국판 / 김정기 옮김 / 값 4,500원

## ○ 가면의 천사 I · II

사랑을 찾아 표류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 배신당한 사랑에 온몸으로 양갈음하는 욕망의 화신들. 사랑에 대한 강한 집착이 애증이 되어 증오만을 불태우는 사람들.

이들 활화산같은 개성들이 엮여 가는 애증의 드라마.

■ 신국판 / 바다저작권회사번역실 / 값 4,500원